

주일가정예배

[통일주일]

2023년 6월 25일 주일예배

인도: 가족 대표

기 원 인도자

이는 이들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엡2:15-16)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의 목자 되시고 신실한 인도자가 되심을 찬양합니다. 어느덧 한 해의 절반인 6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았습니다. 지난 반년동안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동행하여 주신 주께서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하실 것을 믿으며 매일매일 주님을 의지하며 기대와 소망으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눈을 들어 생명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께서 주신 소망 속에서 새 날을 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 다같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 송 94장 다같이

1.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2.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뺏지 못해
3.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 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후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기 도 가족 중

성경봉독 에베소서 4:27 인도자

27.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설 교 『 무당이십니까? 성전이십니까? 』 인도자

기 도 설교자

주기도문 다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 광 고 】

1. 대한민국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6월 되게 하옵소서.
2. 사명에 맞는 달란트와 능력을 주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게 하옵소서.
3. 교회 사역들이 왕성하게 일어나게 하시고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옵소서.
4. 헌금안내 : 기업은행 022-046724-04-012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중앙교회
※ 이름과 헌금종류를 적어 송금 예) “이름+감사” / “이름+주일” / “이름+십일”

무당이십니까? 성전이십니까?

에베소서 4:27

허태일 목사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34은 “34.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할만하면 사랑하고, 그렇지 않으면 사랑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무조건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8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8.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우는 사자는 배가고파서 먹이감을 찾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적 마귀가 왜 삼킬 자를 찾냐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본문 에베소서 4:27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7.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틈’은 ‘장소를 내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마귀를 위한 장소를 내어 주지 말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무당이 아닌 이상 대적 마귀가 우리의 삶에 임하도록 간절히 바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당처럼 사단을 우리에게 삶에 초청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만듭니다.

에베소서 4:26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26.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으면 죄를 지을 수도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고 있으면 틈이 생기고, 이 틈으로 마귀가 내 삶에 들어와 주인행세를 한다는 겁니다. 분을 품으면 무당처럼 살게 되기 때문에,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에베소서 2:14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14.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 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서로 미워하면 우리 사이에 담이 생기는데, 예수님은 이 담을 헐기 위해 죽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허문 담을 다시 쌓고, 사단에게 틈을 만들어주고, 사단이 우리의 삶에 들어 올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 줍니다. 이렇게 성전이 되어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무당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당이 되시겠습니까? 거룩한 성전이 되시겠습니까? 서로 사랑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되시길 축복합니다.